

12/4/16

설교 제목 : 방언과 예언의 은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4:1-9

- (고전 14:1)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 (고전 14: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절관주** 마 13:11
- (고전 14: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 (고전 14: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 (고전 14: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절관주** 민 11:29
- (고전 14: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 (고전 14:7) 혹 피리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 (고전 14:8)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 (고전 14:9) 이와 같이 너희도 험로써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절관주** 고전 9:26

본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14장까지에 걸쳐 성령의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12장은 전반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언급했고 14장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선호했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 불리는 13장을 삽입해 넣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있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종류의 방언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을 보겠습니다.

(행 2: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행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행 2: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행 2: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행 2: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120 문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도들은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무리들에게 배운 적도 없는 각 나라의 언어 즉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언어가 달라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처음 일어난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받은 방언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게 하여 사역할 수 있게끔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방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 (행 10:30)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 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빗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 (행 10:31)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 (행 10:32) 사람을 옹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 (행 10:33)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 (행 10: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 (행 10: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 (행 10: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 (행 10: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 (행 10:46)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이달리야 부대 백부장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그는 이곳 유대 땅에 와서 살긴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들을 만큼 히브리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가서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중 성령이 임하시며 저들이 방언을 말했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을 다 알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방언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이방인인 이들에게 주저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후에 유대에 있었던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은 이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 (행 11: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 (행 11: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 (행 11: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행 11: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증거를 들은 다른 사도들은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은 다른 종류의 방언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을 보겠습니다.

이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할 때 기도에 심취되면서 알아 들을 수도 없고 뜻도 모르는 말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바로 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방언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제멋대로 방언을 하여 도저히 질서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었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이 교회에 덕을 끼치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2 장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14 장에서 다시 꺼내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예언보다는 방언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고전 14:1)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은사가 귀한 것이지만 그 은사가 바로 쓰이는 것도 귀한데 은사가 바로 쓰이기 위해서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다같이 성령의 역사인데도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예언은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이스' '그대로 말한다'라는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나비' '메시지를 전하는 자,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런 이유로 설교와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까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한 후 왜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전 14: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말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따라서 그 내용도 사람은 알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전 14: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반면 예언은 말하는 대상이 사람이며 그것으로 인해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세운다'는 의미로 영적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권면, 위로와 격려 등의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말이 됩니다.

(고전 14: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자기에게만 유익하지만 예언은 듣는 이들의 신앙 지식과 인격과 생활에 도움을 주므로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고전 14: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는 예언이 방언보다 좋지 않겠느냐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전 14: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전 14:7) 혹 피리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고전 14:8)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알아 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피리나 거문고 그리고 나팔을 예로 들어 이런 생명이 없는 악기들도 그것들의 독특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거문고를 타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나팔을 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것을 듣는 이가 알아 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전 14:9) 이와 같이 너희도 험로써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알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권면을 합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시대나 지금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구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은 똑같나 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와 하고 속타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이 권면은 오늘날 현대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알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말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고 회개하게 하여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3.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사역을 감당할 때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덕을 끼쳐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서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